

입을만한 어린이 책

▶강아지 왈츠(김나월 지음, 전미영 그림)=어린이 성장 동화이다. 연주는 정우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깨닫고 성장의 문턱을 훌쩍 넘어선다. 작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대상들의 우울한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이를 극복하게 해 어린이 독자들의 감수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가문비어린이. 1만 1000원.



▶나는 해녀입니다(김여나 지음, 장준영 그림)=아흔여섯 살 먹은 해녀. 난장 할망은 바다가 좋을까 봐요. 할망은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할망이 바다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할망의 남은 꿈은 무엇일까요? 키큰도토리. 1만4000원.



▶고풍고풍 하우스(조신애 지음)=양육자와 아기가 집이라는 생활 공간에서 보내는 하루를 '섬세하게 그려 내어 오랫동안 시선을 붙잡아 두는 작품'으로, "오랜 시간 마음과 수고를 쏟아 만든 작업의 밀도와 작가의 삶에서 끌어올린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평을 받으며 제2회 사계절그림책상을 수상했다. 사계절. 1만4000원.



▶슬픔아 안녕(열매 지음)=처음으로 슬픔을 맞이한 아이가 슬픈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떠나보내는 이야기. 작가는 아이들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두려워만 하지는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쓰고 그렸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제대로 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봄봄. 1만4000원.



▶비밀의 숲 코끼리 나무(프레야 블랙우드 지음)=케이트 그리니웨 이상, CBCA(호주어린이도서협회) 대상과 명예상을 일곱 차례나 수상한 호주 그림책 작가 프레야 블랙우드의 첫 번째 단독 그림책. 이 책은 "깊은 감동과 다정함으로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잔잔한 파문을 그리며 노래하는 글 없는 그림책"이라는 심사평이 있었다. 창비. 1만5000원.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요(리베카 후이 지음, 안넬리 브레이 그림, 손성화 옮김)=위대한 명작 속 예술가의 생생한 삶이나, 지구에서 벌어지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세계인들의 삶을 소개하는 '피카 인물 그림책 시리즈' 두 번째 작품. FICA. 1만5000원.



'처음 시작하는 당신'에게 건네는 응원

아직 쌀쌀하긴 해도 봄기운이 피어오르는 3월이다. 봄을 알리는 듯 파란 하늘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니 여유를 즐기기도 좋은 계절이기도 하다. 거기에 살짝 책을 곁들이면 어떨까. 도서관이 추천하는 책과 함께 3월을 시작해보길 권한다. 도서관 나들이도 좋겠다.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매월 테마와 관련한 다양한 책을 접하고 작가와의 북토크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북토리(Booktory)'를 운영하고 있다. 3월의 테마는 '처음 시작하는 당신에게'와 '달라도 괜찮아'다.

도서관은 "3월은 봄기운과 함께 무엇이든 시작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달"이라며 운동, 요리, 그림 등 새로운 취미생활을 책과 함께 시작해볼 것을 권한다.

도서관이 '처음 시작하는 당신에게' 테마에 맞춰 추천한 도서는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법(이다혜 지음, 창비 펴냄) ▷밥 챙겨 먹어요, 행복하세요(마포농수산센터 지음, 세미콜론 펴냄) ▷가능한 불가능(신은혜 지음, 제철소 펴냄) ▷동생이 생기는 기분(이수희 지음, 민음사 펴냄) ▷그림 여행을 권함(김한민 지음, 민음사 펴냄) ▷인생에 늦은 때란 없으니까, Not too Late Diary(황보출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애쓰지 않는 요리(다나가 레이코 지음, 책읽는수요일 펴냄) ▷리추얼(메이슨 커리 지음, 책읽는수요일 펴냄) ▷하루 클래식 공부(글릿 지음, 유유 펴냄) ▷조깅의 기초(빌 바우어만·W.E.헤리스 지음, 유유 펴냄) 등 10권이다.

'달라도 괜찮아' 테마엔 ▷나에게 비밀이 있어(이동연 글·그림, 울리 펴냄) ▷고구마구마(사이

다 글·그림, 반달 펴냄) ▷다다다 다른 별 학교(윤진현 지음, 천개의바람 펴냄) 등 10권을 추천했다. 3월 테마에 맞춘 책 20권은 도서관 로비에 한 달간 전시된다.

이와 함께 도서관은 '처음 시작하는 당신에게' 테마와 관련해 이달 북토리 강연자로 10살 차이 나는 동생이 생긴 언니의 이야기를 네컷 만화로 표현한 만화예세이집 '동생이 생기는 기분'을 펴낸 이수희 작가를 초청해 이달 26일 북토크를 진행한다. 신청(신청순 50명)은 이달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새봄, 목표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제주시 우당도서관도 3월 사서 추천도서 테마를 '시작'으로 정했다. 시작의 계절인 봄을 맞아 자신의 목표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추천도서는 책 읽기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권하는 '책은 시작이다'(오사다 히로시 지음, 시와서 펴냄)와 자신의 꿈에 도전하기를 독려하는 '김미경의 마흔 수업'(김미경 지음, 어웨이크북스 펴냄)을 비롯 ▷보고서의 정석:공무원·공공기관(임영균 지음, 소문서가 펴냄) ▷산책을 듣는 시간(정은 지음, 사계절 펴냄) ▷역사의 쓸모(최태성 지음, 다산초당 펴냄) ▷마스크 요정과 꼬마꽃별(정범중 지음, 문학동네 펴냄) ▷꽃이 필 거야(정주희 지음, 북극곰 펴냄) ▷열 살, 사랑(박호미 지음, 웅진주니어 펴냄) ▷내 인생의 코끼리(랄프 헬퍼 지음, 키다리 펴냄) 등 성인도서 3권, 청소년도서 2권, 어린이도서 4권이다.

추천 도서 관련 정보 및 사서 추천 글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및 '책섬, 제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 도시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

김태일의 '제주 도시건축의 단면'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가 최근 50개의 주제로 보는 '제주 도시건축의 단면:땅·공간 그리고 삶의 풍경'을 펴냈다.

김 교수는 '책을 출간하며'에서 "2008년 '제주도시건축을 이야기하다', 2014년 '제주도시건축과 삶의 풍경'을 출간한 이후 작성한 글과 연구의 내용들을 모아 제주도내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연결되는 도시건축을 50개 주제로 나누어 제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했다는 김 교수는 "아름다운 화산섬, 제주도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구체화하는데 본서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제주만이 갖는 특유의 가치와 정신을 적지 않게 훼손시킨 것도 적지 않다"는 김 교수는 크게 7장으로 구성된 책에서 초고층 건축 콤플렉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오라관광단지개발, 해저고속전철과 케이בל카 콤플렉스, 비자림로 확·포장 논쟁을 비롯 어린이교육시설의 패러다임 전환, 15분 도시의 지향점, 제주시 원도심 재생, 초고령사회, 인권으로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화와 빛 공해 등을 주제로 다룬다.

한편 김 교수는 제주의 특별함을 땅의 가치, 풍경과 흔적, 기억의 가치에 두고 도시건축과의 공존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제주대학교출판부. 1만 5000원. 오른지기자

작고 귀한 마음들이 그리는 행복한 세상

김폼마 동시집 '쫄꺄락'

김폼마 작가의 두 번째 동시집 '쫄꺄락'이 출간됐다.

책엔 4부에 걸쳐 75편의 동시가 실렸다. 그리고 저자의 어린이 친구 열 명이 동시를 빛내줄 예쁜 그림들을 그려주었다.

'쫄꺄락'은 '작다, 조그마하다'라는 뜻의 제주어다. 제목처럼 작지만 소중한 마음들이 동시집에 담겼다. 1부 '자연야, 감동했잖아'에는 바람, 햇살, 비, 꽃, 나무, 오름 등 자연을 소재로 한 동시가, 2부 '쫄, 비밀이야'엔 아이들의 유쾌한 건강한 일상이 담겼다. 3부 '내가 지켜줄게'는 거미, 달팽이, 새, 고양이, 버섯, 모기 등 우리 주위의 소중한 생명들의 이야기가, 4부 '또 보고 싶어요'에는 가족의 이야기가 함께한다.

출판사는 "저자는 전작에 이어 이번 동시집도 쉬운 단어와 구조를 통해 미취학 아동들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이들의 말로 아이들의 시선에서 조그맣고 순수한 마음들을 모은 사랑스러운 동시집"이라고 소개했다. 한그루. 1만1000원. 오른지기자



Advertisement for Sorisem digital hearing aids, featuring a doctor and product images. Text includes '잘 안들리십니까?' and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Advertisement for Wuniamaid Dimchae products, featuring images of refrigerators and freezers. Text includes '오리지널의 공식대로 The Original dimchae' and '위니아 덩채 전품목 할인행사'.